

광산구 전국 최초 직영 어린이집 2년만에 문닫나

아동학대 의혹 등 각종 잡음에 폐원 위기...민간위탁 전환 추진 원아 대거 빠져나가 현재 원아수 0명...오는 9월께 재개원 예정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직영운영한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 2년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아동학대 의혹 등 직영운영 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신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17일 광산구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범 사례로 2018년 4월 정원 36명의 '구립 한울림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전국 최초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직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원으로 원장 1명을 1년 임기 계약직으로, 보육교사 4명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한울림어린이집'은 개원 이후 광산구 직영체제의 공공성을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보육교사의 태도와 자질 등을 문제 삼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지난 2월에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원아수 0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광산구는 곧바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기관에 의뢰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보육교사가 원아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혼

자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아이를 10여분간 방치하는 등 보육교사의 자질이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과정에 원장과 보육교사간 심각한 불협화음까지 알려지면서 공공 보육기관의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

한 학부모는 "내 자녀의 보육을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어 인근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겼다"며 "원아들의 보육보다는 종사원들이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불신감이 팽배하자 지난 2월 기준 27명이었던 원아 수는 지난 4월 이후 0명으로 폐원위기를 맞고있다.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

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인력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원장은 시간선택제 계약직 신분인 반면 보육교사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원장의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구조"라며 직영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영체제를 처음 시도한 만큼 보육교사를 한 곳에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민간 위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5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7월 위탁업체를 공고하고 9월께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빈 우유팩을 분리수거함에 넣고 있는 모습. 우유팩을 깨끗하게 씻어 수거함에 넣으면 수거보상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률 30% 목표

광산구 자원순환도시 척척

에코라이프 문화 정착 등

3대 중점 전략 실행 나서

광주시 광산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현'을 목표로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2019년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자원으로 재활용된 양은 전체의 12.3%인 1만1815 t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재활용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자원순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명실상부한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대 중점 전략을 마련하고, 자원재활용 30%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우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8월 주민과 전문가,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청소행정시스템 개선 TF'를 발족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배출·운반·선별·처리 단계별 최적 처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광산구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시스템 최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또 시민 일상에서 1회용품 줄이는 에코라이프 문화 정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환경부 발표 기준 광주시민 1회용품 사용량은 주당 13.89개로 전국 평균인 11.31개를 넘어섰다. 배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품목 비율도 종이 28.5%, 플라스틱 20.8%로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산구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일상 만들기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의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 컵 세척·소독기도 8곳에 설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원 50명 장성호서 인명 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원 50여명은 지난 16일 장성호 조정경기장 인근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잦은 태풍 예고로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마련됐다.

수상과 수중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가상해 소방헬기와 보트를 이용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각종 수난장비 조작, 숙달로 수중 적응훈련을 집중적

로 했으며,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구조자 및 실종자 수색, 돌발 상황대처 등 다양한 상황별 훈련도 진행했다.

송성훈 119특수구조대장은 "수난사고는 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응만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습 침수' 광주 연산지구 배수로 정비 등 개선 사업 국비 133억 전액 투입

광주시는 17일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연산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배수 개선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연산동, 남구 구소동 일대 152ha 농경지가 혜택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농식품부 기본 조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 배수문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배수 개선 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재해 예방 시설을 갖추고 농 농 환경을 개선한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잘했다"

환경부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서구·광산구도 높은 점수 받아

광주시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주시 등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 13곳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전북 장수군 등이다.

광주시는 점검률과 적발률 부문에서 좋은 평가

를 받았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0만 여개다.

이 중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역시 1그룹, 광역도 1그룹, 기초 5그룹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 및 적발률 등 9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

가한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로 변경해 시행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6.5점(72.4~78.9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환경 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등 배출업소 협업 관리 분야에서 전년보다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포인트

낮아졌다.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증가해 점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는 17.9%인 8737개로 나타나, 적발률 평균은 전년 대비(19.8%) 1.9%포인트 떨어졌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시 등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면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